

위기를 기회로! 다시 일어서는 전북경제

전북중기청,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자금지원 실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지역내 피해대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피해기업들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된 이후, 7월 15일부터 전북도 등 8개기관 합동 '일본수출규제 애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함께,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반도체, 소재·부품전문 인증기업 등 125개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125개사 중 피해 예상기업은 15개사로, 이중 재고물량 확보 등 원부자재 구입을 위해 자금을 요청한 3개사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 또는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오는 9월 5일 출범하는 '대중소상생협의회의'에서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분야의 품목을 선정하여 급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17억원을 활용, 140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를 호소하거나 우려되는 15개사에 대해서는 전북중기청이 중진공 및 비즈니스지원단 수출전문위원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 일본규제 피해가 해소될 때까지 밀착관리할 예정이다. 향후 발생하는 피해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8월말부터는 피해현황에 대한 지원과 함께 향후 기술·부품 자립화를 위한 지역내 우수기업을 발굴 하여 전북경제를 이끌 중심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 도내 소재·부품 관련기업 800여개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이의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화대책'에서 발표한 100대 강소기업과 연계하여 자금, R&D,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매년 20개씩 5년간 100개를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 100개 발굴을 위해 창조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기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광재 청장은 "일본수출규제 관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출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시 언제든지 전북중기청으로 연락하면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재훈 주무관(063-210-648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의 새 단장을 했다.

신선한 고품질 농축산물이 한자리에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 개장기념 특판전 등 이벤트 다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지사장 윤갑현)이 오늘부터 농협 정채상에 맞게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선도매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새 단장하여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 전주점은 채소·과일·축산물 등 농축산물을 1층 전면에 배치하고 종류도 2배 이상 늘렸다. 기존의 사업자매장과 소매매장을 통합하여 도·소매 고객 간 교차 구매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일 반생활용품은 지하로 배치하고 매 대 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하여 고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했다.

더불어 새단장 개장기념으로 오늘부터 일정 금액이상 구매 고객에게 지역 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추석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할인전을 실시하고 30만원이상 구매시 농협상품권 증정과 무료 택배 서비스 등 다채로운 추석 특판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갑현 지사장은 "도·소매 통합매장의 신 매장 모델 도입, 상품구성의 다양화 등으로 고객의 쇼핑 편리성을 도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축산물 판매 전문 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농가소득 5만만 원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 무허가축사 합동 컨설팅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주김제완주축협·지자체·지역건축사가 함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허가축사 합동컨설팅은 지난 2017년 전주김제완주축협이 각 지자체·지역건축사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26일 완주군, 27일 전주시, 28일 김제시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을 비롯한 합동컨설팅단은 약 30여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무허가축사적법화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축협·지자체·건축사가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컨설팅을 주관한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조합원님과 우리축협의 사활이 걸린 만큼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테니 조합원님께서도 조합에 미련된 적법화상담반을 적극 이용하시고 각 지자체, 건축사협회, 국토정보공사 등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의 유익적 이용을 통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 2년간 약 4억원의 자금을 무허가축사대상 조합원에게 지원했으며, 2018년에는 전국 농·축협 경제사업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무허가축사 우수축협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계, 日 백색국가 배제 조속한 철회 촉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을 28일 단행하자, 중소기업계가 이의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을 단행했다"라며, "일본의 조치 장기간화, 글로벌 밸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별 대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인 백색국가에 속한 기업에는 일

반포괄허가로 1주일 내 수출 허가를 내주고, 허가 절차를 최대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반면에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그간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았던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 촉구"를, 국내 중소기업계에는 "위기를 기술개발의 계기로 삼자"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계 철저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봄비는 성수기 피해 여유롭게 떠나요"

이스타항공, 특가 이벤트 오픈

이스타항공은 봄비는 성수기를 피해 늦은 휴가를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전 노선 대상 '늦강스 페스티벌' 특가 이벤트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늦강스 페스티벌' 특가 이벤트는 28일 오후 2시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해당 이벤트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탑승 가능한 이스타항공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특가가 오픈된다.

항공요금은 편도총액유임 최저가 ▲국내선 12,900원 ▲국제선 45,3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최근 7-8월

봄비는 성수기 시즌을 피해 5~6월 미리 휴가를 다녀오거나 9월~10월 늦은 휴가를 준비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특히 9월은 더위가 한 풀 꺾여 여행하기 좋은 계절로 늦강스 페스티벌을 활용해 좋은 여행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에서 매달 선정하는 추천 노선 '월간 이스타'에는 9월 상하이 노선이 선정되어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상하이 노선과 관련된 다양한 여행정보, 이벤트, 제휴혜택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및 예약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발효유·치즈 학교급식 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발효유·치즈 학교급식 사업에 전북에서는 고창, 익산, 임실의 22개 중·고등학교(학생수 2304명)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우유급식률이 낮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해 2019년 2학기에 26개 지자체 152개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국산원유를 사용하고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발효유, 치즈를 주 3회 내외의 급식으로 시범 공급한다.

현재 학교우유 급식률은 201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73.6%, 중학교 35.3%, 고등학교 22.3%로 중·고등학교의 학교우유 급식률이 저조한 실정

이다. 농식품부는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발효유·치즈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26개 지자체의 152개 중·고등학교를 발효유·치즈 시범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급별 선정과정에서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도를 통해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식품영양·유가공 및 생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발효유·치즈급식 시범사업은 성장기 학생의 신체발달과 건강증진, 발효유 및 치즈 등의 소비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립축산과학원·LG유플러스, 스마트축산 '맞손'

5G 기술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축산과학원과 LG유플러스가 5G 기반 스마트축산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7일 국립축산과학원 양정원 5층 소회의실에서 '스마트축산 상호협력·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유일의 축산업 국립연구소기관과 5G 기술과 서비스 분야 전문 기업이 스마트 축산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와 LG이노텍이 공동 연구 중인 육계(고기용 닭)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시범 농가 대상 육계 스마트팜 기술 실증·검증 사업 진행, 농가 보급·확산을 위한 5G 네트워크·서비스 앱(APP) 등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사업

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무인사양관리 시스템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을 다양한 축종으로 확대 스마트축산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정원장은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기술 교류로 ICT 기반 시설을 현장에 보급해 농가 편의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양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강원도 평창)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스마트축산을 비롯한 새로운 품종의 가금 종자 개발과 생산성 향상,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사양 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적화된 네트워크 기반으로 모바일, 홈(Home), IoT(사물인터넷), 기업(Corporation) 4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혁신적인 유무선 결합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기업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